



## [시장동향] 英,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

- 버터, 육류 등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6.7% 상승



지난 4월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식료품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통계청(ONS)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%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, 식음료연맹(FDF)에 따르면,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6.7% 상승하며 10여년 만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마가린 및 기타 식물성 지방(22.7%), 버터(12.7%), 소고기(10.2%) 및 돼지고기(10.1%) 가격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며 크게 오른 가운데 식음료연맹은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%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.

업계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압박으로 식료품 가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, 식용유, 연료, 비료 등 필수품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식음료업계는 물론 가정의 가계 소비지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. 이러한 가운데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식량 부족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영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식량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< 출처 : farminguk.com, 5월 20일 >

## [교역동향] 우크라이나, 곡물 수출량 감소세

- 러시아의 흑해 봉쇄 이후 곡물 수출량 크게 줄어



러시아의 침공 이후 최대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.

최근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농림부 자료를 인용해 5월 이래 총 643,000톤의 곡물을 수출했다고 보도하며,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80만 톤을 수출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.

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전까지만 해도 매달 최대 6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해왔으나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3월부터 곡물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계속되는 흑해 봉쇄로 옥수수, 밀, 보리 등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은 물론 식량 위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 < 출처 : thecattlesite.com, 5월 20일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